



태양의 바다 초록빛 물결로 가득한 무.안 백.련.지.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그윽한 차 향기와 만날 수 있는 여행

계절마다 빼 놓지 않고 가는 여행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연꽃으로 가득한 연밭이다. 연꽃은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달라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볼 수 있다.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연꽃은 고혹하다. 향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향이 천리를 간다는 연꽃의 향은 꽃의 자태와도 잘 어울린다. 초록 잎이 끝없이 펼쳐진 연밭은 태양의 바다다. 해바라기 보다 넓은 잎을 펴서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다 받아낸다. 포화된 열기는 희고 붉은 꽃으로 피어난다. 무안군 화산 백련지는 초록빛 연잎의 바다에 보석 같은 연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글·사진 장태동(여행 칼럼니스트)



연꽃과 연잎 등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연밭 물길사이로 작은 보트를 타고 다닐 수 있다.

태양을 먹고 피는 꽃, 연꽃으로 가득한 백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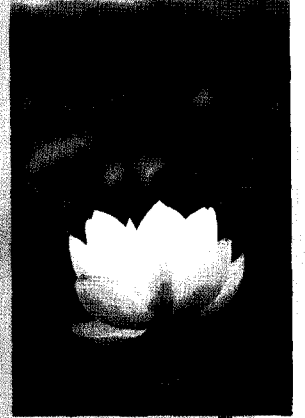
서해안고속도로 일리IC로 빠져 나와 여름 한철 뜨거운 햇볕을 다 받아내는 초록빛 연밭과 회고 붉은 연꽃을 보기 위해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회산 백련지를 찾았다. 백련지는 둘레 3km, 면적 약 33만㎡로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이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연꽃으로 가득한 백련지는 장관 그 자체이다. 가히 초록 바다를 보는 듯하다.

온몸이 부어오르고 머릿속에 수증기가 콕 찌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몸을 움직여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지칠 정도로 몸을 움직여 부어오른 살과 느슨해진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데 얼굴이며 등, 가슴, 어깨로 구르는 땀줄기를 느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늘 하나 없는 10만여 평의 연밭을 돌아보는 걸음마다 땀이 떨어진다. 연꽃 곳곳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는다. 땀을 흘린 양만큼 마음이 차분하고 상쾌해진다. 온 몸으로 흐르는 땀을 느끼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펼쳐지는 초록빛 연밭의 향연에 오랜 만에 몸과 마음이 긴장되고 눈이 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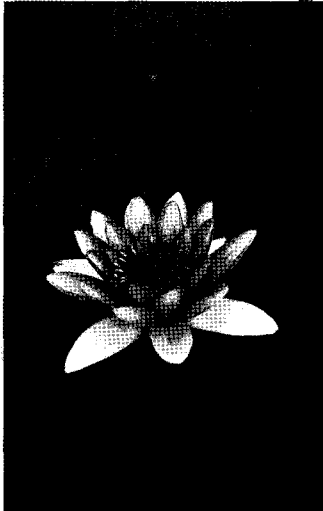
사실 백련지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삼과 가래를 이용해서 손으로 만들어 낸 저수지다.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백련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푸른 연잎의 바다에 회고 붉은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울타리가 없는 백련지 둘레를 돌아 매표소를 지났다. 연밭 사이로 길이 이어진다. 녹색의 넓은 잎사이로 흰 연꽃이 피었다. 수련이 피어난 연못에는 둘다리가 놓였다. 작고 예쁜 수련의 고풍한 자태에 여행자들의 시선이 고정된다. 넓은 연잎이 접시안테나처럼 하늘을 향해 있다. 연밭은 초록빛 물결이다. 초록과 어울린 연꽃의 흰빛은 더 순결해 보인다. 하나의 생명으로 피어난 연꽃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연꽃의 만개. 소중한 무엇인가를 꽃잎으로 감싸고 있는 듯하다.





백련지의 만개한 연꽃
꽃 중에 가장 예쁜 것이
연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감동 중 그 친목이 이렇게 깊은 것은 드물다.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환생을 했고, 부처님이 앉아 있는 곳도 연꽃 위이다. 정화의 과정을 거쳐 인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깨우침을 상징하는 것에 연꽃도 한 몫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비록 종교는 없지만 초록의 연밭에 피어난 흰 연꽃을 보고 느꼈던 게 '순결'과 '정화'였다. 연꽃은 자신의 상징성을 제대로 여행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순결과 정화'의 과정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초록의 연잎의 하늘을 향해 활짝 날개를 편 이유는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와 빛을 받으려는 조화일 것이다. 용광로에서 활활 타는 쇠물이 반짝이는 무엇이 되듯 초록의 잎으로 태양을 집어 삼키고서야 저렇게 흰꽃을 피워낼 줄 아는, 그래서 더욱 더 순결한 상징으로 피어나는 것이 연꽃이리라. 연꽃 앞에서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 동안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깃이 나부낀다. 연꽃도 흔들리고 바다 같은 초록의 연밭도 전체가 일렁인다. 이마 위 땀이 마르고 등줄기가 시원하다. 그렇게 연밭을 걷는 사이 작은 보트 몇 척이 연밭 사이로 오가는 모습을 만났다. 연꽃과 연잎 등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연못에 배를 띄운 것이다. 초록의 바다에 등 실 떠있는 쪽배에 몸을 싣고 바라보는 연꽃의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았다.

‘동다송’ 초의 의순을 바라보다

백련지 산책을 마치고 도착한 곳은 '초의선사 탄생지'였다. 조선시대 정조가 왕위에 있을 때 태어난 초의선사는 조선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같은 시대의 인물인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선생 등과 교류하며 학문과 친분을 나누었던 인물이다. 그가 태어난 곳이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다(일지암, 기념관, 박물관, 연꽃연못과 누각, 생가 등으로 꾸민 '초의선사 탄생지'는 현재 왕산리에 있다).

불국사에서 도를 깨달은 뒤 삼십년 세월을 지내고 나서야 그는 차를 노래한 시집 <동다송>을 펴냈다. 그때 그의 나이 쉰두 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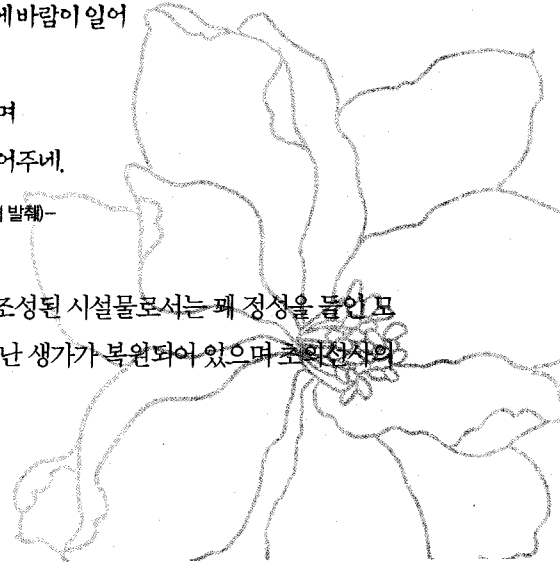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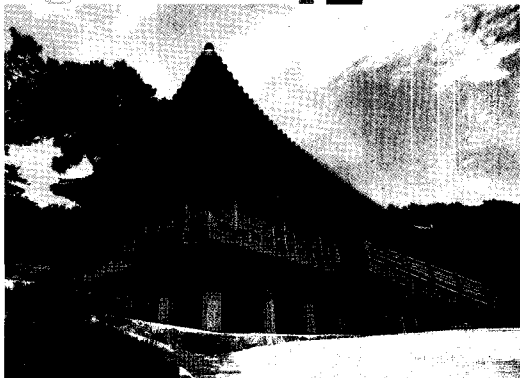
지리산에서 만든 다기세트와 지리산자락에서 난 찻잎을 선물로 받은 때가 있었다. 그때 이후로 가끔 생각나면 차를 우려 마시곤 한다. 초의선사 의순이 우리의 차를 노래한 책 <동다송>도 그때 읽었다. 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한다.

육회같은 차를 한잔 마시니 겨드랑이에 바람이 일어
몸이 가벼워져 하늘을 거니는 것 같네,
밝은 달은 촛불이 되고 또한 친구가 되며
흰 구름은 자리 되고 아울러 병풍이 되어주네.

-동다송 16절(너려바위에서 퍼낸 책 <동다송>에서 발췌)-

'초의선사 탄생지'는 시골마을에 조성된 시설물로서는 꽤 정성을 들인 모양이다. 그곳에는 초의선사가 태어난 생가가 복원되어 있으며 초의선사의

초의선사의 차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선차 역사박물관
간을 전체가 나무로 지어져
실내에서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나무향이 난다.





① 초의선사가 태어난 곳

② 초의선사 탄생지 안 한옥과 연못이 있는 정원

③ 초의선사 탄생지 안 연못과 한옥이 어울려 운치를 자아내고 있다.

일대기를 알 수 있는 기념전시관과 차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 문화관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입구의 문을 지나 오르막을 오르면 오른쪽에 작은 연못과 한옥이 어울린 풍경이 나온다. 초의지와 용호백로정이다. 연꽃이 피어난 연못 위에 기와로 된 한옥 건물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조화로운 어울림이다. 용호백로정에 오르니 앞뒤로 트인 한옥 대청마루 구조 때문인지 시원한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마루에서 바라보는 연못은 운치가 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초의 의순이 정진하며 <동다송> 등을 완성한 일지암이라는 작은 초가가 있다. 그 위로 기념관과 그의 사당인 다성사가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성사 앞에서 눈 아래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옆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면 차 문화관이다.

차 문화관은 거대한 한옥 건물이다. 건물 전체가 나무로 지어졌다.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향이 은은하면서도 강렬하다. 차와 관련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품 하나하나에 눈길을 없었다. 그 모양과 색만 보아도 가벼운 느낌이 전혀 없다. 그윽한 차향에 어울리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

동다송에서 그가 '옥화 같은 차를 한 잔 마시니 거드랑이에 바람이 일어 몸이 가벼워져 하늘을 거니는 것 같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초의 의순을 바라보고 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윽한 향을 머금은 차 한 잔 마신 기분이다. ☺

+PLUS

찾아가는 길

◎자카용

화산백련지: 서해안고속도로 일로C로 나와서 우회전 한 뒤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이정표가 잘 갖춰져 있다.

입장료: 성인 3천원/어린이 2천원

초의선사 탄생지: 무안에서 1번 국도를 타고 목포 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목포시 접경지역에서 삼항리 왕산면 쪽으로 우회전(이정표 있음)하면 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불편하다. 무안버스터미널에서 화산 백련지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드물다. 택시는 2만5천원~3만원 정도 나온다.

무안의 양파와 짬뽕삼겹살

무안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20%를 차지한다. 무안에서는 양파로 김치를 담근다. 장아찌를 담아 먹기도 하고 식초절임도 만든다. 생양파로도 먹는데 맵지만 달다. 다른 곳에서 먹는 양파와 맛이 다르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없애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에도 좋다고 알려졌다. 또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고 술로 생기는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등 술 먹은 뒤 숙취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밖에 소화를 돕고 조혈기능을 돕는다고 전해진다.

백련지와 초의선사 탄생지를 돌아보고 북쪽으로 차를 달려 몽탄면 사창리 항공우주전시관 주변에 있는 두암식당을 찾았다. 이곳은 지푸라기로 삼겹살을 구워 주는 '짬뽕삼겹살'로 유명한 곳이다.

삼겹살을 얇게 썰어 석쇠에 가지런히 놓고 40초 정도 짬뽕에 구우면 완성이다. 양파김치와 계장을 같이 만든 소스가 나오는데 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